

‘광주다움 통합돌봄’ 안착, 13개 기관·단체 힘 보탠다

질병·사고·장애 등 돌봄 필요한 곳 재산·연령 불문 이용 서비스
올 102억 투입...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 1인 年 150만원 한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의 안착을 위해 복지·보건·의료계 주요 기관과 단체가 힘을 보태기로 했다. 민선 8기 광주시 복지 분야 1호 공약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 누구나 질병,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소득, 재산, 연령,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다.

광주시는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13개 민간 단체, 공공기관과 광주다움 통합돌봄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 단체, 노인 장기 요양기관, 재활센터, 의사·한의사회, 물리치료사 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서비스원, 도시공사 등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 돌봄이라는 안전망이 하나 더 구축됨에 따라 돌봄의 빈틈이 메워질 것 같다”며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는 올해 102억원(시비 79억원, 구비 23억원)을 투입해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

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하고,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돌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시민에게는 먼저 기존 돌봄 제도를 안내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는 ‘광주 플러스(+)' 돌봄’ 서비스를 연계, 위기 상황에는 긴급 돌봄으로 즉시 지원한다. 플러스 돌봄은 취사·청소·수발 등 가사, 영양식 등 식사, 병원·관공서 등 동행, 의사 방문 진료 등 건강, 인공지능 안부 전화 등 안전, 간단한 집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 편의, 단기 보호 등 7개 분야에 걸쳐 지원된다.

특히 동행 지원은 병원 진료, 검사, 처방 약 구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돌봄 성공적 추진을 위해 8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다움 협력기관들과 함께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등까지 제공해 수요가 클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광주시민 절반가량인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는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시·구·비지

원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85%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긴급 돌봄은 기존 중위소

득 100% 이하에는 전액 지원, 100% 초과는 본인 부담이며 1인당 지원 한도는 연간 60만원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북 초·중 학생에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선정...광주, 옛 과학고서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초·중등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신규 지역으로 광주와 전북도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교육장 구축, 전문 강사 양성, 초·중등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광주시는 옛 광주과학고등학교 건물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로 활용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이노베이션스퀘어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남원시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를 만들고, 전주, 무주, 순창에 교육거점을 마련할 예

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개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인재 800여명을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로 양성했다고 밝혔다. 또 도서벽지 학교, 지역아동센터, 특수학교 등에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해 약 15만명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년 사랑방 ‘토닥토닥 청년 일자리 카페’

면접 정장 대여 등 취·창업 활동 거점...이용자 5만명 돌파

광주 ‘토닥토닥 청년 일자리 카페’가 취·창업 활동 지원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자리 카페는 면접 정장 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 공간 대관, 취·창업 프로그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정장과 구두, 넥타이까지 1인당 연간 5회, 최장 3박4일 동안 빌릴 수 있다. 회의나 네트워크 활동 등 취·창업 목적에 맞게 시설을 대관하고 교육 프로그램, 마음 치유를 돕는 ‘원데이 클래스’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 카페는 2019년 3월 서구 상무지구에 문

을 열어 5만여명이 이용했다.

지난해에는 1만3000여명이 방문해 대관(36.5%), 정장 대여나 이력서 사진 촬영(26.9%) 등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취업 학습 지원, 온라인 인공지능(AI) 모의 면접도 상반기 안에 시작할 예정이다.

광주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청년들은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청년 결혼 축하금 확대

결혼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남지역 청년 부부 대상이 확대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추진중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제도와 관련, 도내 거주 조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사업비도 지난해 대비 12억 원 증액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부부 5000쌍을 대상으로 각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 최소 한 사람이 초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 이내에 거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안 어업인 ‘해상풍력 조성 촉구’ 환영”

김영록 지사 “주민 수용성 확보”

신안 10개 어업인단체의 전국 최초 해상풍력 조성 촉구 성명 발표와 관련, 전남도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수산업과 상생, 일자리 창출, 세계적 해상풍력 중심지 육성에 온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업인 단체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단지의 신속한 추진과 합리적 보상 방안 수립을 정부에 촉구한 신안군 어업인연합회 입장에 대해 “해상풍력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인 주민수용성 확보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해상풍력 터빈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제품 우선 구매제도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 해상풍력 8.2GW 조성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48조 5000억 원을 투자, 12만 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는 해상풍력 전력계통 확보와 주민 수용성 추가 확보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 문제 해결’ 실행의제 찾습니다

전남도, 17일까지 모집

전남도가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민·관이 협업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2023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의제’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지역 활력, 탄소중립, 로컬푸드,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전남도민 또는 지역 단체·기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역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도민이나 단체·기관은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나 전남사회혁신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한 후 전자우편

(jinsi2020@naver.com)으로 제안과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커피박 친환경 재자연화 사업 고도화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키트 지원 ▲탄소중립 친환경 실천을 위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없는 목포 프리마켓 등 20개 실행의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올해도 도민·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행의제를 공모해 전문가 컨설팅,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15개 내외 실행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실행의제 수를 일부 줄이고 파급력 있는 의제 선정 등 전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 반영구적 사용가능
- ▶ 관리의 간소화
- ▶ 낮은 관리비
- ▶ 자연과의 동화
-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